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24
APR 17 2020

발간년월 2020년 4월 17일 (통권 제12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EAEU, 식량 가격 상승 우려 곡물·채소 수출 잠정 제한
- 칼리닌그라드(러)-로스톡(독) 간 복합물류 루트 개설
- 러시아, 코로나19 대응 위해 경제·사회 지원 방안 발표
- 카스피 해 송유관, 3월에 사상 최대의 원유 수송량 기록
- 러시아, 올해까지 북극해 연안 허브항만 건설부지 선정
- 아제르바이잔, 코로나19 여파로 튀르크 평의회 긴급회의 주관

주요 통계

- 2019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EAEU, 식량 가격 상승 우려 곡물·채소 수출 잠정 제한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최근 일부 곡물과 채소의 제3국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음^{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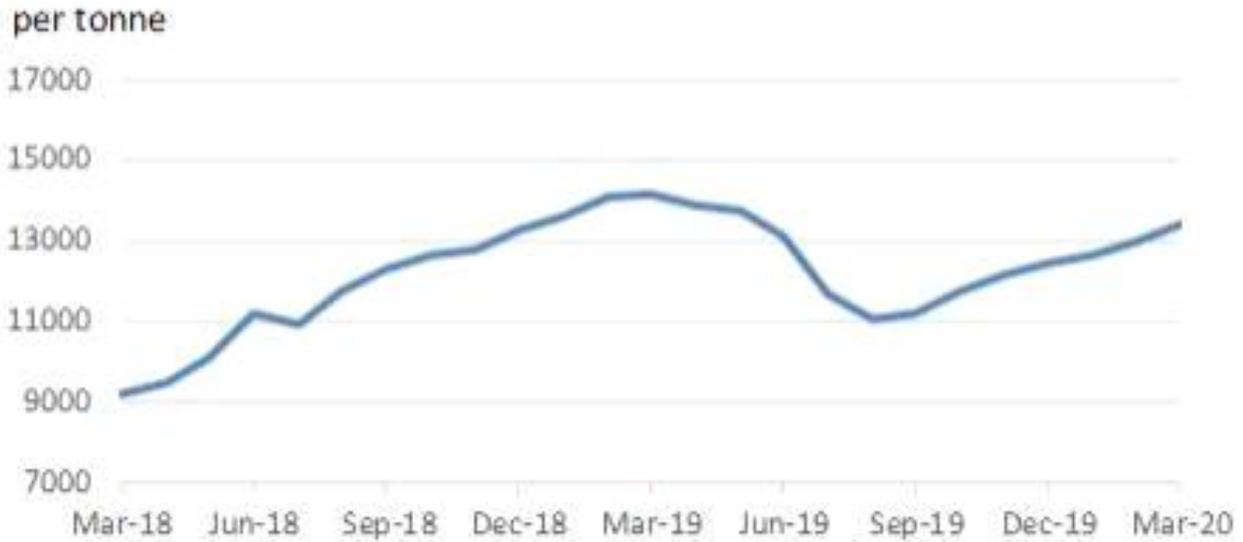
- 3월 31일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EAEU) 회원국들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EEC) 이사회를 통해 일부 곡물과 채소류의 제3국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함
- EAEU는 러시아의 주도로 2015년 1월 공식 출범했는데, 현재 러시아를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EEC는 EAEU의 상설 경제협의기구임
- EEC 이사회는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기장, 수수, 굵은 밀가루, 벼, 대두 등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설정했는데, 이번 조치는 4월 12일 시행되어 6월 30일 종료될 예정임
- 이 조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역학적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앞서 러시아 농산물 감독청(Rosselkholnadzor)은 국내 곡물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10일 동안 메밀, 쌀, 귀리 등 주요 비축 곡물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음

■ 일부 전문가들은 루블 가치 하락과 건조한 기후로 인한 수확량 저하로 식량 가격이 곧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음^{d)e)}

- 일부 전문가들은 3월 말~4월 초 루블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경고함
- 또한 러시아 남부 주요 곡물 생산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곡물 수확량 감소와 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소매 업체들은 이미 대다수 식량업체의 공급 가격이 5~15%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공급 업체는 향후 20~50%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 독점방지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 FAS)은 소매 업체들이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소매가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등 다 방면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림. 최근 러시아 국내 밀 도매가격 변화 추이



자료: <http://www.fao.org/giews/food-prices/regional-roundups/detail/es/c/1270745/>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l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a) <https://tass.com/economy/1143591> (2020.4.13. 검색)
- b) <http://www.eaeunion.org/> (2020.4.13. 검색)
- c)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russia-food/update-1-russia-suspendse-exports-of-processed-grains-idUSL8N2BG6OQ/> (2020.4.13. 검색)
- d) <https://tass.com/economy/1142905> (2020.4.13. 검색)
- e) <https://o.canada.com/pmnbusiness-pmn/dry-weather-adds-to-risks-for-russias-grain-crop/wcm/47e3de5b-941d-47de-9ff9-e68a2af50d61> (2020.4.15. 검색)

칼리닌그라드(러)-로스톡(독) 간 신규 복합물류 루트 개설

■ 칼리닌그라드-로스톡 간 신규 복합 물류 운송 시범 서비스에 착수했음^{a)b)}

- 러시아 철도청(Russian Railways), DB Cargo(Deutsche Bahn Cargo), JSC UTLC ERA(Joint Stock Company “United Transport and Logistics Company-Eurasian Rail Alliance”)^{c)}는 중국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착하는 새로운 복합 운송 노선을 개설함
- 신규 노선은 중국 시안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거쳐 칼리닌그라드 항에서 독일 로스톡 항을 지나 뒤스부르크에 도착하는 루트이며, 3월 25일 시안 발(發) 화물은 4월 5일 칼리닌그라드 컨테이너 환적 처리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로스톡 항만까지 시범 운송될 예정임
- 같은 구간의 해상 운송에 약 45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신규 복합노선을 이용할 경우 14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서비스를 개발한 러시아 철도청 등은 시범 운송 결과를 토대로 4월에는 5량의 열차로 왕복 시범 운영을 더 진행할 계획임

그림. JSC UTLC ERA의 열차 화물 운송 구간



자료: <https://www.utlc.com/en/>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l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https://www.railfreight.com/beltandroad/2020/04/09/new-multimodal-route-via-kaliningrad-rostock-tested/> (2020.4.13. 검색)
- <https://www.utlc.com/en/> (2020.4.13. 검색)
- JSC UTLC ERA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각각 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카자흐-러시아-벨라루스를 관통하는 열차 컨테이너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러시아, 코로나19 대응 위해 경제·사회 지원 방안 발표

■ 코로나19 여파로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은 2020년 3월 2.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러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간의 원유 감산 협상 결렬에 따른 루블화 가치의 하락과 코로나19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식료품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설탕으로 가격이 13.5% 상승했으며, 곡물의 경우 13.4%, 버터 9.2%의 상승률을 보임.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인 4%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지원 등 방안을 발표했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 간의 화상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 대응 지원방안 대책을 논의하였음

그림. 화상 회의를 하는 푸틴 대통령과 각 지자체 단체장



출처: https://aebrus.ru/en/news/vladimir_putin_announced_new_support_measures_for_businesses_and_citizens_affected_by_covid_19/(검색일: 2020.3.17.)

- (중점지원)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의료진과 확진 환자에게 10억 루블 (약 166억 2천만 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고 의료진에게는 러시아군과 동일한 추가보험

- 을 제공하기로 함. 의료진들은 4월부터 3개월 간 추가로 월 최대 8만 루블*을 받기로 함
- ※ 의사: 8만 루블, 중급 의료진: 5만 루블, 초급 의료진: 2만 5천 루블, 응급 의료진: 5만 루블, 구급대원 및 운전자: 2만 5천 루블
- (기업지원)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납부를 6개월간 연기 받고 미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할부로 나누어 월 단위로 지불하기로 함
 - (사회지원) 임시 실직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존 소득을 고려한 생활 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여권·면허증 등은 자체 격리 기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음

허재영 연구원, 국제협력·ODA센터
(hgy1@kmi.re.kr/051-797-4904)

참고자료

- a)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04/06/russias-inflation-picks-up-after-ruble-crash-a6-9889> (2020. 4. 13. 검색)
- b) https://aebus.ru/en/news/vladimir_putin_announced_new_support_measures_for_businesses_and_citizens_affected_by_covid_19/ (2020. 4. 13. 검색)

카스피 해 송유관, 3월에 사상 최대의 원유 수송량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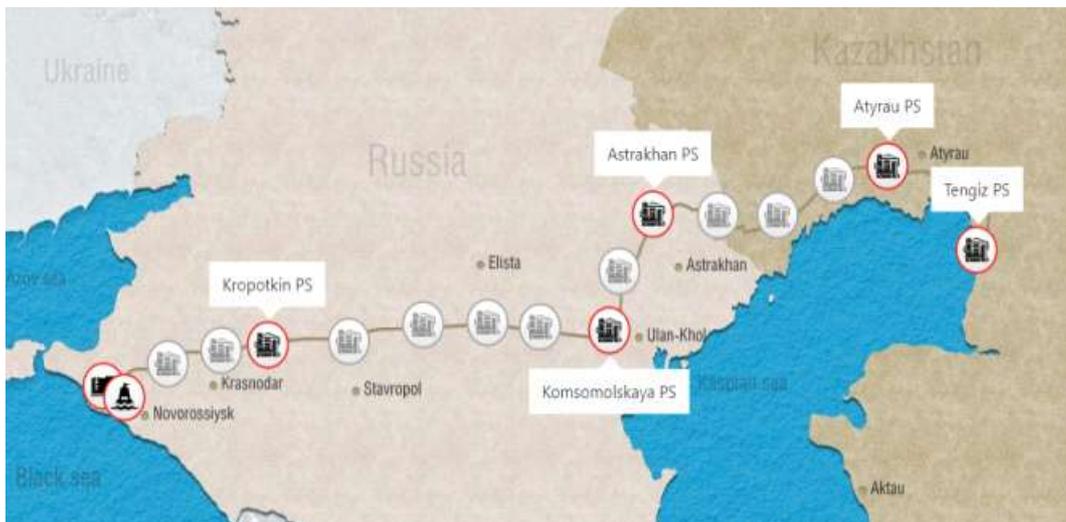
■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수출 원유의 2/3 이상을 수송하고 있음

- 2001년 11월에 개통된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텡기즈(Tengiz) 유전에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까지 총 1,511km 연결됨
- CPC 송유관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에너지 분야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카스피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유전의 원유뿐만 아니라 모든 카자흐스탄 수출 원유의 2/3 이상을 운송하고 있음. CPC 송유관에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거나 상당히 먼 거리의 해상에서도 유조선에 적재할 수 있는 3개의 싱글 포인트 도어(SPM)가 설치되어 있음

■ 3월에 CPC 송유관의 해상터미널을 통해 6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수송했음

- 카진폼(Kazinform) 통신원에 따르면, 2020년 3월에 CPC 송유관의 해양터미널(MT)을 통해 원유 645만 톤(51,118,685 배럴)이 수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치는 CPC 송유관이 이전 월간 적재 기록을 세운 2018년 12월보다 49만 톤 증가한 것임
- 2020년 3월에 적재된 645만 톤의 원유는 Tengiz(2,831,492톤), Karachaganak(973,899톤), Kashagan(1,846,332톤) 등의 파이프라인 기지에서 적재된 물량임

그림. CPC 송유관 노선



출처: <http://www.cpc.ru/EN/about/Pages/maps.aspx/> (검색일: 2020. 4. 1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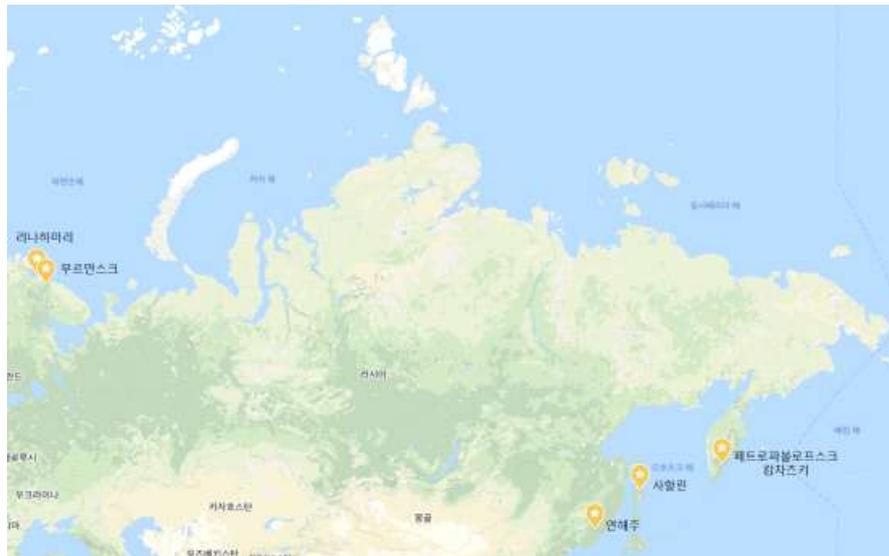
- a) https://www.inform.kz/n/caspian-pipeline-consortium-set-a-new-monthly-crude-loading-record-in-march_a3632493 (2020.04.13. 검색)
- b) <http://www.cpc.ru/EN/Pages/default.aspx> (2020.04.13. 검색)

러시아, 올해까지 북극해 연안 허브 항만 건설부지 선정

■ 러시아 북극·극동개발부와 러시아 원자력공사(로스아톰, Rosatom)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북극해 연안 허브항만 건설부지 선정이 2020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

-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러시아 북극·극동개발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허브항만 후보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선정을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까지 북극운송회랑과 접한 해안을 따라 30곳 이상의 장소가 검토되었으며, 주요 후보지로 리나하마리, 무르만스크,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 사할린, 연해주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크루티코프 장관은 면밀한 경제성 분석과 시뮬레이션 모델 준비 등을 통해 북방향로의 남방향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업목적에 맞는 장소를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주요 허브항만 건설 후보지



자료: <http://google.com.maps>

■ 이 사업은 2019년 12월 23일 로스아톰이 수립하고,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계획'의 하나임

- 이 개발계획은 2024년, 2030년, 2035년까지의 3단계로 구분되며, 대규모 투자 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발, 북극항로 항해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부터 북극에서의 항행 보장을 위한 인력확보 및 의료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긴 84개의 정책으로 이뤄짐

- 로스아톰은 관련 러시아연방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북극항로 인프라 확보 및 운영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북극항로 연안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인프라 개발계획은 이전까지의 부문별 계획들과는 달리 25개 이상의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일반계획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임
- 2020년 1월 30일 러시아 정부가 ‘2035년 북극전략’을 승인함에 따라 로스아톰의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계획은 러시아의 새로운 북극전략의 틀에 맞게 조정되어 진행될 예정임

이준용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charmant9430@hufs.ac.kr)

참고자료

- a) <https://portnews.ru/comments/2812/>(2020년 4월 11일 검색)
- b) <http://gazetazp.ru/lenta/43191/>(2020년 4월 11일 검색)
- c) <https://sudostroenie.info/novosti/28997.html>(2020년 4월 13일 검색)
- d) https://www.rosatom.ru/journalist/news/pravitelstvo-rf-utverdilo-plan-razvitiya-infrastruktury-smp-do-2035-goda-podgotovlennyy-rosatomom/?sphrase_id=1301299(2020년 4월 13일 검색)

아제르바이잔, 코로나19 여파로 튀르크 평의회 긴급회의 주관

■ 4월 10일 일함 알리에프(İlham Ə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의장국의 자격으로 튀르크 평의회(Turkic Council) 긴급 정상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음

- 알리에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화상회의의 목적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전략에 관한 가맹국 사이의 경험 교환, 및 유사시 상호 지원 및 가맹국 국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대통령은 튀르크 평의회는 전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다른 국제기구들과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중앙아시아 튀르크 문화권 국가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운송 및 물류 센터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판데믹 상황에서도 국제 화물 운송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조정의 역할에 경주하고 있음. 전염병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4분기 물동량은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40,000톤이 증가한 180,000톤 이상이 터키와 중앙아 국가들 사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을 거쳤음
- 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는 튀르크 평의회 조직이 공고화 되고 있으며, 터키와의 경제협력규모 확대를 들 수 있음. 터키의 대아제르바이잔 투자액은 120억 달러(한화 약 14조 7,400억 원), 아제르바이잔의 터키 투자액은 150억 달러(한화 약 18조 4,200억 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2017년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 개통, 카스피 해에 위치한 바쿠 국제 상업항의 10만 개 컨테이너와 1,500만 톤 화물 처리 역량 보유 또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튀르크 평의회는 2009년 아제르바이잔 나히체반(Naxçıvan)에서 튀르크 언어권에 속한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인도적 지원, 관광, 정보통신 및 통신기술 협력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정회원국은 아제르바이잔,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이며, 헝가리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정회원국이 아니지만 구르반굴리 베르디무хам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medow) 대통령이 이번 화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 또한 물동량 유지 및 카스피 해를 통한 물동량 단축 및 신속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BTK 철도 노선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BTK 철도선이 현재 일일 3,500톤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나아가 운송 회랑을 통한 물류의 이동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주문하였음. 그 일환으로 튀르크 평회의 국가들의 교통부 장관 및 통상부 장관 화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철도 노선이 미국을 단일한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던 것처럼, 최근 교통 인프라의 발전이 아제르바이잔의 세계시장 접근을 활성화 시켰고, 그 결과 남북 국제 운송 회랑을 통한 물동량도 10배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그림. 튀르크 평의회 화상 정상회의



자료: <https://www.turkkon.org/en>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denizxeber.az/2020/04/13/koronovirusla-agir-mubariz%20-%20dovrund%20-%20az%20-%209%20baycan-turk-dovl%20-%20t%20-%20rinin-m%20-%20nafeyi-namin%20-%20yukdasimalari-200-min-tondan-asirdi/> (2020.4.14.검색)
- b) <https://denizxeber.az/2020/04/14/az%20-%20baycan-prezidentinin-t%20-%20s%20-%20bbus-etdiyi-turk-zirv%20-%20si-daha-bir-tarixi-layih%20-%20nin-baslangici-ola-bil%20-%20r-btq-nin-orta-asiyayad%20-%20k-uzadilmasi/> (2020.4.14.검색)



표 1. 2019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2.29 (+1.8%)	7.14 (+0.3%)	19.43	+1.3%
북극해	2.6 (+0.6%)	6.13 (-2.7%)	8.72	-1.5%
발트해	8.89(-0.9%)	11.74 (-1.1%)	20.64	-1.0%
아조프-흑해	9.17 (+2.0%)	14.82 (+0.0%)	23.98	+1.0%
카스피해	0.29 (+2.6%)	0.41 (-5.9%)	0.7	+3.2%
합계	33.23 (+1.0%)	40.24 (-0.6%)	73.47	+0.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88413/> (검색일: 2020. 3. 20)

표 2.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57,912.1	1,057,232.2	357,092.0	1,044,068.2	820.1	13,164.0
광물 제품	1,649,738.8	436,559.5	1,629,082.1	125,919.7	20,656.7	310,639.8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87,385.4	112,461.3	1,387,267.8	112,417.7	117.5	43.6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673.7	752,268.8	3,850.7	744,393.9	823.0	7,874.9
가죽원료, 모피 제품	36.0	20,757.0	26.1	20,511.3	9.9	245.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06,036.0	93,723.2	105,857.2	92,173.2	178.8	1,550.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200.8	311,379.5	110.5	305,473.2	90.3	5,906.3
금속 및 금속 제품	35,929.1	682,979.8	35,795.9	667,699.6	133.2	15,280.2
기계류	266,960.6	4,511,042.9	244,270.7	4,499,061.2	22,689.9	11,981.8
기타	467,687.5	516,245.3	440,888.8	513,774.7	26,798.7	2,470.6
합계	2,889,174.5	8,382,188.3	2,816,973.9	8,013,075.0	72,200.6	369,113.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검색일: 2020.3.20)

표 3.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 생물	3	362.5	4	442.2	3	362.5	4	442.2	-	-	-	-
냉동어	108,005	2,098,303.5	1,885	50,582.0	107,876	2,097,570.8	1,885	50,582.0	129	732.8	-	-
연어류	11,513	378,792.9	-	-	11,502	378,537.9	-	-	11	255.0	-	-
넙치	140	30,445.5	-	-	140	30,445.5	-	-	-	-	-	-
가자미	1,460	16,305.0	-	-	1,460	16,305.0	-	-	-	-	-	-
가자미류	1,766	35,332.3	-	-	1,766	35,332.3	-	-	-	-	-	-
청어	35,915	112,421.4	-	-	35,797	111,962.6	-	-	119	458.9	-	-
대구	3,037	197,401.6	-	-	3,037	197,401.6	-	-	-	-	-	-
명태	49,212	953,818.1	-	-	49,212	953,818.1	-	-	-	-	-	-
농어	75	2,136.9	-	-	75	2,136.9	-	-	-	-	-	-
간, 곤이 (어란)	836	263,159.2	-	-	836	263,159.2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428	16,378.3	-	-	428	16,37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593	154,691.5	83	4,364.5	587	154,676.8	83	4,364.5	7	14.8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2	1,781.7	123	5,994.3	112	1,781.7	123	5,994.3	-	-	-	-

갑각류	6,690	1,116,114.2	73	2,893.5	6,690	1,116,114.2	73	2,893.5	-	-	-	-
계류	5,530	1,017,648.9	-	-	5,530	1,017,648.9	-	-	-	-	-	-
조개류	4,014	121,517.0	-	-	4,014	121,517.0	-	-	-	-	-	-
가리비류	25	12,183.4	-	-	25	12,183.4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3,910	78,145.1	26	2,957.3	3,910	78,145.1	26	2,957.3	-	-	-	-
수산 무척추 동물	1,174	34,369.2	-	-	1,174	34,338.8	-	-	0	0	-	-
해삼류	253	7,416.7	-	-	253	7,386.3	-	-	0	0	-	-
성게류	919	26,385.4	-	-	919	26,385.4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을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20.3.20)